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 노력

중국

1차 아편전쟁 (1840~ 1842) : 영국이 아편 밀무역 -> 청의 아편무역 금지 -> 영국이 무역항 확대 명분으로 청 침략 -> 청 패배 -> 난징조약 체결(**1842**, 5개항 개항, 홍콩 할양, 영국에 배상금 지불)

2차 아편전쟁 (1856~1860) : 청의 시장 개방 확대를 원하는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청 침략 -> 청 패배 -> 텐진조약과 베이징 조약 체결(추가조항, 크리스티교 인정, 러시아의 연해주 차지)

태평천국 운동 : 홍수전이 상사회 조직 -> 태평천국군이 청의 왕조 타도(열만홍한), 토지 균등 분배, 남녀 평등 주장 -> 향융과 외국 군대에 의해 진압됨

양무 운동 : 서양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한 한인관료들(중국전, 이홍장 등)이 중체 사용 원칙 아래 추진 -> 서양식 무기 도입, 산업 육성, 육해군 양성, 외국어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 청일전쟁 패배로 중단

일본

중체 사용 : 중국의 전통적인 학문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뜻 - 양무운동의 이론적 기반

문명 개화 :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 메이지 유신 원칙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개항 요구(포함외교) -> 미일화친조약(**1854**, 문호 개방,

최혜국대우 인정) -> 미일통상조약(**1858**, 영사재판권=치외법권과 관세 특혜 인정)

포함외교 : 강대국이 약소국에 함대를 파견하여 약소국을 억압하고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

개항 이후 일본 경제 어려움 -> 하급무사 중심으로 막부 체제 무너뜨리고 천왕 중심의

신정부 수립(왕정복고) -> 메이지유신(**1868**) : 근대적 개혁 추진, 문명개화 표방 -

입헌군주제 도입, 상공업 진흥 도모, 근대 산업 육성, 의무 교육 실시

제국주의화 : 개혁에 대한 무사계급의 불만(신분제 폐지에 불만) : 대외적 침략 시도 : 정한론 제기(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하자), 타이완 침략, 류큐 강제 병합

강화도 조약 체결과 문호 개방

강화도 조약 체결(1876.2 조일 수호 조규 = 병자 수호 조약) : 강화도 연무당, 구로다 - 신헌 자율적 : 대원군 하야, 고종의 친정과 민씨 세력 집권, 통상 개화론

대두(박규수.오경석.유홍기 등)

타율적 : 윤요호 사건(**1875**) - 포함외교, 강화도 초지진 -> 영종도

침략 의도 1관 : 조선의 자주국 명시(청의 종주권을 차단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

4관 : 3개 항구 개항 - 부산(1876, 군사 기지 점령 위한 것) -> 조선의 영토 주권 침해

불평등 : **10관(가장 독소적 조항)** : 치외법권(영사 재판권) 인정(조선내 일본인 보호) -> 조선의 사법권 침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일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7**) : 일본인 거류지(조계=간행이정) **10리** 설정, 개항장에서 일본화폐 사용 허용 -> 조선 경제의 일본에 예속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 **1876.7**) :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항세.쌀.잡곡의 무제한 수출 허용 -> 국내 산업의 보호가 어려워짐

조.일 수호 조규 속약(1882.7) : 제물포 조약과 동시에 체결,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 확대(1882년 50리 -> 1884년 100리 -> 1885년 양화진 개시)

조.일 통상 장정(수정, 1883.7) : 관세 규정, 방곡령 근거 조항 설정(1달 전 통보), 최혜국 대우 규정(균점 이익) -> 일본 상인에 실질적 내지 통상 허용 <-> 대책 : 보부상 - 해상공국(1883), 객주 : 상회사 설립(1883) - 대동상회(평양).장통회사(서울)

각국과의 조약 체결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4) 신헌.김홍집 - 슈펠트 : 미국의 알선(이유 : 조선에 대한 영향력 과시, 러시아와 일본 견제를 위해), 김홍집이 들어온 “조선책략” 유포 이후 미국과의 수교 주장 대두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적.불평등 조약

거중조정 인정, 최혜국 대우 인정, 관세부과 규정 : 강화도 조약과 차이점

치외법권 인정 : 강화도 조약과 공통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8) : 임오군란(1882.6) 계기, 청 상인의 실질적 내지 통상권 허용, 치외법권 인정, 최혜국 대우 규정 X -> 조선을 속국으로 인정 -> 청의 종주권 인정을 재규정함

기타 국가 : 영국(1883, 최초로 통상 요구, 아편수입 조항으로 비준 늦어짐) -> 독일(1883) -> 이탈리아(1884) -> 러시아(1884, 청의 중재 X, 독자적 수교, 뮐렌도르프 - 베베르) -> 프랑스(1886, 천주교 포교 문제로 늦어짐 -> 천주교 허용), 최혜국 대우 조항 포함 - 불평등 조약

개화정책의 추진과 갈등

개화파의 형성과 성장 : 박규수(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 오경석(중인 출신 역관 - 영환지략, 해국도지 도입), 유홍기(한의사) 등이 통상 개화론 주장 (<-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영향) -> 양반자제 교육 :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 -> 개화파 형성 : 사절단으로 파견, 정부의 개화 정책 주도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 동도서기론에 바탕

관제 개편 :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 : 개화 정책 총괄, 청제도 모방, 그 아래에 12사 두어 실무 분담(장관 - 총리대신), 개화파 인사 등용

군대 개편 : 구식 군대 : 5군영 -> 2영(무위영.장어영)으로 축소, 신식 군대 : 별기군

창설(1881, 일본의 지원)

사절단 파견 : 수신사(1876, 일본) : 일본 요청시 파견, 공식적인 외교 사절, 근대 시설 시찰 1차(876) : 강화도 조약 이후(김기수) -> 2차(1880) : 김홍집이 황준헌이 지은 [조선책략]을 들고 옴 -> 3차(1882) : 박영효(김옥균은 고문으로 따라감), 임오군란 후 배상금 문제 협상, 태극기 공식적 첫 사용

조사시찰단(1881.4, 일본) : 일본의 산업 시찰 목적, 비공식적(암행어사) :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유길준 등 개화인사 62명 -> 3개월간 각종 근대 산업시설 시찰, 보고서

제출(문건사건) -> 개화정책 추진 뒷받침

영선사(1881.9, 청) : 김윤식과 유학생(38명) 파견 : 무기 제조법, 근대식 군사 훈련법 배움 -> 기기창 설치(1883)

보병사(1883.5, 미국) :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 : 민영익(전권 대사), 홍영식, 유길준 등 -> 미국의 근대 시설 시찰(워싱턴.뉴욕 엑스포 관람), 미국 대통령 접견,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유학

근대 시설 설치 : 박문국(1883, 박영효 건의, 한성순보 발행), 기기창(1883, 김윤식, 근대식 무기 공장)

전환국(1883~1904) : 근대식 화폐 발행, 월렌도르프의 주장으로 당오전 발행(183~1894) <- 김옥균은 반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1860년대 : 흥선대원 집권기 -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 : 이학로[화서집], 기정진 등이 통상반대 운동, 척화주전론 ->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지지

1870년대 : 일본의 개항 요구 : 개항 반대 운동, 최익현의 [5불가소](지부복궐상소), [왜양일체]론, 개항불가론

1880년대 :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과 “조선책략” 유포 : 개화정책 반대 운동, 이만손의 [영남만인소](1881)(<-[조선책략 비판] : 모르던 나라 미국, 혐의 없는 나라 러시아, 섬겨온 나라 청,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 일본), 홍재학의 척화상소(1881)

1890년대 : 을미사변 발발, 단발령 선포 : 유인석, 이소용 등이 항일의병운동 주도(을미의병) 의의 : 외세의 침략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반외세.반침략의 자주적 운동,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

한계 :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지배질서 고수, 정부의 개화정책 반대 -> 근대적 개혁에 장애, 근대화 지연

조선 책략 : 청의 외교관 황준헌(황준센) 저술, 김홍집이 일본에서 유입,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친중국, 견일본, 연미국 해야한다고 주장

임오군란(1882.6) <- 1882.4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개화정책 추진 -> 세금 부담 증가, 일본으로 곡물 수출 -> 쌀값 상승

별기군 우대와 구식군인 차별 대우 (월급 13개월 밀림 : 선혜청 고치기 구타 사건)

구식3인 봉기 : 민씨 정권 고관과 일본인 교관 죽이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부사는 간신히 일본으로 탈출) -> 서울의 하층민들 함세, 왕궁 습격, 민씨정권 요인 살해(민경호:별기군 창설, 선혜정 곡식 배급 담당 책임자), 명성황후 피신(충주 민옹식 집으로)

흥선대원군 일시적 재집권 : 5군영 부활,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 폐지

청군 개입 :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출병, 대원군 청 압송 -> 군란 진압

민씨세력 재집권(친일 -> 친청 정책으로), 청의 내정간섭강화 : 조선에 청군 주둔,

마건상.월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 청.일군 모두 주둔 계기

조약 체결 - 일본과 제물포 조약 체결(1882.7)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허용, 배상금

지불(55만원) -> 조일 수호 조규속약도 함께 체결, 박영효가 사죄 목적으로 일본에 3차

수신사로 파견됨 - 조청 상인 수륙 무역 장정 체결(1882.8) : 청의 종주권 재확인, 치외법권

포함, 청 상인의 내지 통상 실질적 허용 -> 청의 경제적 침투 심화,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 심화

개화파 분화 :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응 차이, 개화 추진 방법의 차이

온건 개화파 : 급진 개화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 유지 :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 청의 내정 간섭 탈피, 조선의 자주독립

청의 양무운동 : 일본의 메이지 유신

동도서기론 입장에서 점진적 개혁 추구 - ‘전통적인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 하자’ : 문명개화론 입장에서 급진적 개혁 추구 - ‘서양 기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 적극 수용하여 하자’ 전면적으로 개혁

갑신정변(1884.10.17) - 3일천하의 꿈,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정변의 주역, 북촌 5인방 :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 급진 개화파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근대적 국민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 심화 -> 개화당에 대한 탄압, 민씨 정권의 친정 정책으로 급진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 지연,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 실패(김옥균) <-> 뮌헨도르프(청 고문관 : 당오전 발행 주장) -> 급진개화파 위축, 청.프 전쟁 발발(1884)로 서울 주둔 청군 일부 베트남으로 철수, 일본 공사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 약속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계기로 정변 발발 <->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 제거(민태호, 민영목) -> 김옥균이 왕.왕비를 창덕궁에서 경주궁으로 이동 -> 개화당 정부 수립(3일 천하) -> 14개조 개혁 정강 발표 -> 왕.왕비는 창덕궁으로 이동 -> 청군 출동, 일본군 패퇴

청군이 진압 -> 청의 내정 간섭 심화, 급진개화파 일본으로 망명 그러나 김옥균 피살, 일본과 한성 조약 체결(1885.3, 청 : 이홍장 - 일본 : 이토) - 청.일 양군 모두 철수, 향후 조선에 파병시 서로 문서로 통보 규정 -> 일본은 조선에 대해 결과적으로 청과 동일한 파병권 획득 -> 청일전쟁의 빌미 제공

개혁 내용 - 개화당의 꿈 : 정치 : 흥선대원군의 귀국 요구,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규장각 폐지, 내각제도 수립 : 입헌군주제 추구(13조 : 대신.참찬은 의정소에 모여 의결.정령 공포, 14조 : 의정부와 6조를 제외한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 처리한다)

경제 : 호조로 재정 일원화, 지조법 개혁(조세제도 개혁O, 토지제도 개혁X), 환곡제도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2조) 등 봉건적 신분제도 타파

의의 :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계승

한계 : 소수의 개화 지식인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개혁 추진, 일본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인 토지제도 개혁에 소홀 ->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의 정세

조선의 친러 정책 :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할 목적으로 조.러 비밀 협약 추진

거문도 사건(1885.3.2~1887) :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 불법 점령 -> 조선 항의와 청의 중재로 2년 만에 철수

조선 중립화론 대두 :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화 건의), 유길준 - '중립화론' 집필(강대국 모두가 보장하는 중립화 건의)

동학 농민 운동

농민층 동요 : 개항 이후 개화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비용 소모,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막대한 배상금 지불, 일본으로 곡물 유출로 물가 폭등, 청.일본 상인의 값싼 영국산 면직물 판매로 농촌 가내 수공업 타격, 집권층의 부정부패로 농민 수탈 극심 -> 농민 봉기 발생

동학의 교세 확장

인내천과(인간평등) 후천개벽(사회개혁) 사상이 큰 호응, 포섭제 정비(북점 : 충청도, 남점 : 전라도) -> 삼남지방 중심으로 교세 확장

교조신원운동 : 1차 - 공주, 삼례 집회(1892, 교조 신원과 포교의 자유 요구)

2차 - 서울 광화문 복합 상소(1893, 교조 신원 상소)

3차 - 보은 집회(1893) : 탐관오리 숙청과 척왜 양청의(외세 축출 등 정치적 요구), 종교운동을 농민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고부민란(1894.1) :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 : 만석보 증축 -> 수세 강제 징수, 공덕비 건립 -> 농민 노동력 착취 -> 고부 농민이 전봉준 지도로 봉기 : 사발통문 이용 -> 고부 관아 습격, 만석보 파괴 -> 신임 군수의 중재로 자진 해산(신임 군수 박원명 선정 배품)

제 1차 봉기(1894.3) : 남접주도 반봉건적 성격 : 안핵사 이용태의 고부 농민봉기 가담자 처벌(동학교도만 탄압) -> 전봉준, 손화중이 고창 무장에서 봉기(창의문 발표) -> 백산에서 4다 강령과 격문 발표 : 호남창의대장소 명의

백산 봉기 격문(호남창의문) : 보국안민 -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제폭구민 -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자 주장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반봉건)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반외세)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고자 함이라 -> 황토현 전투 승리, 장성 황룡촌 전투 승리(4월) -> 농민군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청군 요청 : 청군 상륙(5.5, 아산만 도착), 일본군 상륙(5.6, 텐진 조약 근거, 인천 도착 -> 서울로!!) -> 전주 화약체결(5.8, 전봉준 - 초토사 홍계훈), 농민군 해산 -> 농민군 : 집강소 설치(6.7) - 농민 자치 조직, 전라도 일부 지역(53개군), 전봉준 주도, 폐정개혁안 실천(전라도 가사의 지원받아 추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1895) : 조선 정부는 교정청 설치 하여 자발적 개혁 추진, 청.일군 철수 요구 -> 일본이 경복궁 점령(6.21) -> 아산만의 청군 기습 공격(6.23, 청일 전쟁 반발) -> 군국기무처 설치(6.25) -> 일본의 내정 간섭 심화 -> 일본의 승리 : 시모노세키조약 체결(랴오둥 반도, 타이완, 평후 열도 할양) -> 러시아 . 프랑스 . 독일이 일본 압박(삼국간섭) ->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

제2차 봉기 - 반외세(1894.9) : 일본의 경복궁 점령 및 내정 간섭 심화, 청.일 전쟁 발발, 정부군과 일본 연합하여 농민군 진압 계획 -> 삼례에서 농민군 재봉기 -> 논산에서 남접(전봉준 중심)과 북접(손병희 중심)집결, 연합부대 결성 -> 서울로 북상, 일본군 타도 시도 -> 민보군(양반들이 조직)의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 탄압

의의 : 반봉건적 성격 : 봉건적 지배 체제의 개혁 요구 : 탐관오리 처벌, 노비문서 소각, 백정의 평량갯 소각 등 반침략(반외세적) 성격 :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 운동
영향 : 농민군의 요구 -> 갑오개혁에 반영(신분제 폐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잔여 세력이 항일의병 운동에 가담

갑오개혁의 추진

전개과정 : 개혁내용

1차 : 정부가 교정청 설치(자주적 개혁 추진) -> 일본의 경복궁 점령 -> 흥선대원군 점령 -> 군국기무처 설치 : 일본의 강요, (총재 : 김홍집, 부총재 : 박정양) -> 군국기무처 조선 의원 주도 개혁(유길준 등 16명 20명) 일본 적극 개입 불가 - 청일전쟁 중 : 정치 : 개국개년 사용 : 청 연호 '광서'폐지, 독자적 연호 사용, 왕실과 정부업무 분리 : 왕실 궁내부 신설, 정부업무 의정부, 국왕의 권한 약화, 6조 -> 8아문, 과거제도 폐지, 경무청 설치(근대적 경찰 제도) 경제 : 탁아지문으로 재정 일원화, 사창제 도입, 조세의 완전 금납화(화폐로 납부), 도량형 통일, 은 본위 화폐제도 채택 사회 : 신분제 폐지(공.사노비법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가, 고문과 연좌제 폐지, 태형 폐지

2차 : 우금치 전투 승리 후 군국기무처 폐지 -> 흥선대원군 축출, 고종의 친정 : 독립서고문 . 흥범 14조 반포(1894.12.12, 종묘에서 2차 개혁 방향 제시, 최초의 근대적 헌법) -> 이노우에 공사 주도, 일본에서 박영효.서광범 귀국 -> 2차 박영효 . 김홍집 연립 내각 구성(친일) : 정치 : 내각제 시행(의정부 -> 내각), 8아문 -> 7부(공무+농상아문 - 농상공부), 8도 -> 23부, 재판소 설치(법관 양성소) : 근대적 사법제도 -> 사법권 독립, 지방관 권한 (축소 : 사법.군사적 배제), 교육 입국 조서 반포(1895.2) : 관립학교 증가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

- 1895 설립, 소학교 - 을미개혁 때 설치, 한성중학교(1900) 군제 : 훈련대.시위대 설치 경제 : 육의전과 상리국(해상공국)폐지

3차 을미개혁 : 삼국간섭(독.프.러) -> 일본 영향력 약화, 박영효 실각(억모 혐의로 일본 망명) -> 3차 김홍집.박정양 내각 : 친러 성향 -> 명성황후 시해 : 을미사변 -> 4차 김홍집 내각 수립 : 친일 성향 -> 을미개혁 -> 을미의병과 고종의 아관파천(1896)으로 개혁 중단 : 태양력 사용 : 1895.11.17 -> 양력 1896.1.1, '건양'이란 연호 제정, 우편 사무 재재, 친위대(중앙군) . 친위대(지방군) 설치, 소학령 공포 -> 소학교 설치, 단발령 단행, 종두법 실시, 지식영의 종두법 실시(1879, 충주) -> 2차 수신사 수행하여 일본에서 종두법 배움 -> 우두국 설치 후 종두법 실시(1882 전주, 1883 광주)

의의 :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 반영, 전 분야에 걸쳐 근대적 개혁 실시
한계 : 일본의 강요로 추진, 토지제도개혁 등 민중의 요구 외면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 진흥에 소홀

홍범 14조

- 1.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4.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 7.조세의 부과와 징수.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 10.지방 관세를 시급히 개정하여 이로써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 14.인물을 쓰는 데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독립협회의 활동

배경 : 아관파천 ->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열강의 이권 침탈 강화, 국가 권위 실추, 서재필이 미국 망명 중 서양의 민주주의의 직접 체험, 귀국 후 나라의 자주독립, 자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계몽하여 근대의식을 일깨워야한다고 생각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 발간

주도 : 진보 지식인(개화파) + 정부 관료(안경수 - 초대 회장, 이완용 - 2대 회장)

활동 : 1기 : 민중 계몽 활동 : 영은문X -> 독립문 건립(사바틴 설계).모화관 X -> 독립관 건립

2기 : 강연회.토론회 개최, 정부의 이권 양도 비판 (러시아의 이권 침탈 비판) -> 정부 관료 탈퇴 -> 민중 지지 증가

3기 : 만민 공동회 개최(1898.3~) : 서울 종로, 서재필 주도,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킴(절영도 조차 요구 철회,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의 군사 교관.재정 고문 철수 등)

4기 : 관민 공동회 개최(윤치호 주도 + 박정양, 개혁지향적인 정부 대신과 학생.시민 참석) :

헌의 6조 결의 -> 고종 황제에게 건의 -> 의회식 중추원 관제 반포 : 의회 (상원) 설립

추진(독립협회 지도부 25명 + 정부 관료 25명) -> 고종과 보수 세력의 반발(익명서 사건 : "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하려 한다"고 모함) -> 고종의 독립협회 해산 명령, 독립협회 간부 투옥 -> 정부의 황국협회(보수적 보부상 단체)와 군대 동원 -> 만민공동회 습격, 강제 해산

성격 : 자주국권 운동 : 만민공동회 개최 - 이권수호운동

자유민권 운동 :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요구, 국민 참정권 운동
자강개혁 운동 : 의회 설립

의의 : 민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 운동 전개, 국권 수호와 자유민권 신장에 기여 최초의 민주주의적 정치 운동 -> 국민 참정권 운동, 민중의 지지 커짐, 전국 4천여 명의 회원과 전국적 지회 설립

한계 :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 주로 러시아 배척, 미.영.일에는 우호적
헌의 6조

- 1.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체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 전제군주제X, 자주국권강화
- 2.외국과의 이권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입헌군주제 지향
- 3.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할 것
- 4.모든 중범죄는 따로 공개재판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하여 죄를 지복하게 한 후 시행할 것 -> 피고 인권 존중
- 5.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게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

대한제국 수립 : 아관파천 후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고종의 환궁 요구 및 러시아 견제 여론 고조 -> 고종의 경운궁(순종 즉위 후 '덕수궁')환궁 -> 칭제건원 : 연호 '광무' 국호 '대한제국', 환구단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1897.10)

광무개혁 : 기본방향 : 구본신참 : 옛 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 수용, 위로부터의 개혁(보수 내각), 점진적 개혁

주요 내용 : 정치.군사 : 황제권 강화 <-> 독립협회 : 입헌군주제 - '대한국국제' 선포(1899) : 황제권의 무한함 강조, 입법.사법.행정.외교권.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을 명한다.

- 원수부 설치(1899) : 군 통수권을 황제에게 집중 -> 국방력 강화(시위대.진위대 증강), 지방 행정 구역 개편 : 23부(재정 부담이 커짐) -> 13도(1896, 아관파천 기간 중)

경제 : 양지아문 설치(1898) -> 양전사업 실시 ->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 발급 : 전국적 실시X(러일전쟁으로 중단), 식산 흥업 : 상공업 진흥, 근대적 공장 설립, 민간인 회사 설립 지원, 전화 가설, 전차 부설

교육 : 실업학교와 기숙교육 기관, 의학교, 외국어 학교 설립

한계 :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X, 복고 반동적 개혁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 : 황제권 강화에 치중, 진보적 개혁 요구 반영X :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 해산

국권피탈 과정

러.일 전쟁 : 대한제국 "대외 중립 선언"(1904.1) -> 일본의 한.일 의정서 체결 강요, 군사적 요충지를 임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제1차 한일협약 : 고문정치 : 외교 고문(스티븐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운.장인환이 사살, (1908.3), 재정 고문 파견 메가타, (1905.7 화폐 정리 사업)

한국 지배에 대한 열강의 승인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 일본의 한국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인정, 제 2차 영.일 동맹(1905.8) : 영국의 인도 지배,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정, 포츠머스 조약(1905.9) : 러시아 만주 철수,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정

을사늑약(1905.11) : 보호정치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통감 - 이토 히로부미 부임)

2조 한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고종 강제 퇴위 : 헤이그 특사 구실로(이준, 이위중, 이상설, 1907.4) 고종 강제 퇴위 (1907.7.20) -> 순종 즉위

정미 7조약(한일신협약, 1907) : 통감이 한국의 법령 제정, 고등관리 임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정부의 중요 관직 차지(차관 정치) -> 통감의 내정 간섭 심화

군대 해산(1907) : 한.일 신탁약의 부속 비밀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 강제 해산(-> 해산군인 일부 의병 가담 : 정미의병)

기유각서(1909) : 사법권 박탈 -> 경찰권 박탈로 이어짐(일본이 모든 분야의 지배권 장악)

한국 병합 조약(1910.8) :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 유도 ->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 청원서 제출 -> 한국병합조약 체결 : 한국의 국권 강탈, 조선총독부 설치

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황제폐하에 양여한다.

을사늑약 반대 운동

상소 운동 :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민영환

자결 : 민영환, 조병세, 한일병합조약 때 자결 : 황현(매천야록), 이범진(주려 외교관, 아관파천 주도)

을사5적 암살단 조직(1907) : 나철.오기호 - 1909년 단군교 -> 1911년 대종교 창설

친일파 처단 : 전명운, 장인환 : 외교교문 스티븐스 사살(1908, 샌프란시스코).이재명 :

이완용 처단 시도 (1909.12)

이토히로부미 사살 : 안중근, 1909.10.26, 만주 하얼빈에서 -> 뤼순 감옥

언론 활동 :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도 게재

국제협력 요청 :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헐버트, 1905.12) -> 미국의 외면, 헤이그 특사 파견(1907.4, 이상설, 이위중, 이준 + 헐버트)

항일 의병 운동

을미의병(1895) :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반발한 보수덕 유생 총 주도 : 위정척사 사상 계승

의병장 : 유인서(충청도), 이소응(춘천) 등 유생

단발령 취소와 고종의 해산 권고 조직으로 자진 해산, 동학농민운동군 잔여 세력 가담 ->

일부 세력이 활빈당 조직, 활빈당(1900~1904) : "부호 재산 빼앗아 빈민에게" 이후

1905년부터 의병에 가담

을사의병(1905) : 을사늑약 경제 체결에 반발하여 봉기 / 평민 출신 의병장 출현

의병장 : 민종식(전직관료, 충청도 홍주성), 최익현(전라도 태인 봉기 -> 쓰시마로

압송.순국), 신돌석(평민 의병장, 경상도 평해.울진, 강원 지역 - '태백산 호랑이')

정미의병(1907) : 고종강제 퇴위와 군대강제해산에 반발하여 봉기

해산당한 군인들의 의병합류로 전투력, 조직력 강화 ->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

서울진공작전을 앞두고 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 요구, 평민 출신 의병장

활약 상승 (신돌석/홍범도(포수 출신, 함경도 삼수.갑산에서 활동)) 등

전국 의병 연합 부대(13도 창의군) 편성(1907) -> 서울 진공작전 시도(1908) : 이인영, 허위

-> 일본군의 공격으로 실패 -> 전국에서 의병 항전 계속: 신돌석 - 강원도, 홍범도 - 함경도 등

->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1909)으로 해산 -> 생존 의병들이 만주.연해주(-13도의군

결성, 1910) 이동하여 활동(독립군)

애국 계몽 운동

교육 . 산업 분야의 민족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운동 : 소극적 . 합법적

주도 세력 : 대화자강운동을 계승한 독립협회 계열의 지식인 중심

이론적 근거 : 사회진화론 수용

보안회(1904)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전개 -> 철회 성공

한정 연구회(1905) : 일진회에 비판적인 이준.윤효정이 조직, 헌법과 정치 연구.독립협회

계승 -> 입헌군주제 목표로 활동 -> 을사늑약 반대 입장 표명으로 체포, 활동 중단

대한자강회(1906) : 헌정 연구회 계승, 교육과 산업 진흥 강조, 입헌군주제 수립 주장 -> 전국에 지회 설치(25개), 월보 간행,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주도 -> 통감부에 의해 강제 해산

대한 협회(1907) : 대한자강회 계열 + 천도간부들이 결성, 장지연 주도 -> 1909년 이후 친일 단체로 변질, 일진회와 협력

신민회(1907~1911) - 비밀 결사(기독교인 증가) : 조직 : 안창호 . 양기탁 . 신채호 . 박은식 . 이동녕 . 이동휘 등 민족지도자 대부분이 참여(800여명), 공화전체에 바탕(최초)을 둔 근대 국가 건설 목표, 전국적 조직

활동 : 표면적 - 교육 : 대성 학교(1908, 평양, 안창호), 오산학교(1908, 정주, 이승훈)

- 산업 : 태극서관(서적 출판, 평양 . 서울 . 대구), 자기회사(평양) 설립

- 언론 : 대한 매일 신보 활용(신민회 기관지) 일제 침략 비판

내부적 : 무장 투쟁 준비 ->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 남만주 삼원보 - 신흥무관학교 설립

해산 :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붕괴(1911)

독도와 간도

독도 : 삼국시대 : [삼국사기] -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 독도도 함께 복속

고려시대 : [고려사] - 울릉도를 '우릉(도)' 또는 '무릉(도)'으로, 독도를 '우산'으로 표기

조선시대 : 최초 기록 - [태종실록] : 공도정책(범죄자 도망 우려 및 일본인 이주 방지 목적)

- [세종실록지리지]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강원 울진현 동쪽에 있다”

- [동국여지승람] : 울릉도, 독도 -> 강원도 울진현 소속

- [신증동국여지승람] : 내 팔도총도(16c) : 최초의 울릉도.독도 표기 지도

숙종 때(1693, 1696) :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 받고 돌아옴

-'동국문헌비고' : 독도를 더욱 명확하게 기록/1882년 공도정책 폐지 -> 개척 본격화

대한제국 : 1900년 대한제국칙령제14호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 승격시켜 독도(석도) 관할 범위로 규정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 러.일 전쟁 중 한일 의정서 체결 -> 울릉도에 무선전신 시설과 망루 설치 -> 시네마현 고시 발표, 독도가 무주지(주인없는) 땅임을 이유로 하여 자국영토로 불법 편입(1905.2)

1946 :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제677호 - “일본 관할 대상에서 독도 제외”

1951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제2조 : 일본의 영토 반환 조항에 독도 언급 없음 -> 분쟁의 원인이 됨

독도 관련 일본 측 자료

삼국점양지도(1785) :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색으로 표기, '조선의 것'이라고 명서

태정관지령문(1877) : 일본 최고 행정 기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공식 확인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리는 내용을 시마네 현에 보냄

간도 : 백두산 정계비(1712, 숙종) : 백두산 현지답사, 동 : 토문강, 서 : 압록강 경계 -> 간도는 우리땅 -> 19세기 청 정부의 조선인 간도 철수 요구 -> 백두산정계비 해석 문제로 대립

(토문강을 청이 두만강으로 해석) -> 대한제국의 대응 : 현지답사 (1897, 1898)로 우리 영토

확인, 1903년 (북변)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 임명 -> 을사조약 후 간도협약 체결 (1909) :

일본의 안봉선(남만주)철도 부설권 획득(내용 - 서 : 압록강, 동 : 두만강(석을수) -> 영유권 상실)

열강의 경제 침탈

개항 초기 : 일본 상인의 상권(무역)독점 : 거류지무역 : 개항장 10리 이내의 거류지로 활동 제한 -> 조선 도매상인(객주.여객.보부상) : 외국상인과 조선상인 중개하여 부 축적, 일본

상인 :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체결로 특혜

중계무역 - 수출 : 쌀.콩.쇠가죽 -> 지주 이익 상승, 쌀값 폭등 - 수입 : 영국산 면제품(공업용)
-> 조선 수공업 타격

임오군란 이후 - 청.일 상인 경쟁 본격화 : 조.청 상민 수륙 무역(1882.8) : 청 상인의 실질적 내지 통상 허용 -> 거류지 무역X, 객주.여객.보부상 등의 국내 중개 상인 몰락, 조.일 통상 장정(수정)(1883.7) : 최혜국 대우 보장, 관세 보장, 관세 부과.방곡령 선포 규정(1달전 통보) -> 청.일 상인의 내지 통상 확대 -> 청일 상인 간 상권 경쟁 심화 -> 조선 상인 타격 큼
아관파천 후 - 열강의 이권침탈 본격화 : 아관파천 이후 열강이 일,미,러,독,영을 내세워 각종 이권 침탈 심화, 러시아 : 압록강.두만강 유역.울릉도 삼림 채벌권, 증성.경원 광산 채굴권

일본 : 경인선.경의선.경부선 철도 부설권, 직산 금광(충청도) 채굴권, 러일전쟁 이후 삼림 채벌권 독점, 연해 어업권, 미국 : 운산 금광(평안도) 채굴권, 경인선 부설권, 수도.전등.전화.전차 부설권, 독일 : 당현 금광(강원도) 채굴권, 영국 : 은산 금광 채굴권
러일 전쟁 발발 후 - 일본의 금융지배와 토지약탈 본격화 : 재정 장악 : 차관 제공(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목적)

금융 장악 : 화폐 정리 사업 -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 1905.7(을사늑약 전 시작)~1909

내용 : 조선 화폐(백동화.엽전) 회수 -> 오직 제일은행권 새화폐로만 교환, 백동화 품질에 따라 평가 절하.교환 거부(을중 - 1전 / 병중 - 교환 X)

결과 : 국내 상공업자들 엄청난 타격, 조선 민족 은행 몰락 -> 일본 제일은행에 예속화, 일본 제일은행이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 전황 발생(유통 화폐 부족 현상) -> 물가 안정과 하락, 금본위제 실시(1905)

토지 약탈 본격화 : 고리대로 조선의 토지 매입(호남 곡창 지대 농장 경영) -> 러일전쟁 후 철도부지와 군용지 확보 구실로 역둔토 약탈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1908) : 국유지화 한 황실 토지 일본인에 싼값에 불하

경제적 구국운동

상권수호운동 : 개항장 객주, 일반 상인 : 상회사 설립(1883, 동업자 조합.주식회사 형태) - 대동 상회(평안도), 장통 상회, 서울 시전 상인 : 한국 중앙 총상회 조직(1898)

방곡령 사건, 규정 : 1883년, 중단 : 1894년 : 일본으로 곡물 유출로 곡물 가격 폭등 ->

조.일통상 장정 개정(1883, 방곡령 시행 조항 첨가) -> 지방관이 방곡령 선포 : 함경도, 1889, 조병식, 황해도(1890, 조병철) -> 일본이 조.일 통상 장정을 구실로 철회 및 배상금 지불 요구 -> 방곡령 철회 및 배상금 지불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 만민공동회 개최 -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재정 고문소 철수, 한러은행 폐쇄, 목포.진남포 토지 매입 저지 등), 독일과 프랑스의 광산 채굴 요구 저지 성공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 보안회의 반대 투쟁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성공, 농광회사 설립(1904) : 직접 황무지 개간 목적으로 일부 실업인과 관료가 설립(근대적 농업회사)

국채보상운동(1907) : 일제의 강요로 도입한 차관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 경제적 예측에서 탈피하자는 취지, 대구에서 서상돈.김광제 등 시작 -> '국채보상 기성회' 설립(서울) -> 전국 각계 각층 동참, 홍보 : 대한 매일 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제국신문(독립신문.한성순보X), 활동 : 금주.금연.패불 수합 ->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 전개(성금 헌납 등), 탄압 : 통감부가 양기탁을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베델은 상하이로 임시 추방), 한계 : 고위 관료.부유층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실패

무단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무단 통치(헌병경찰통치): 조직 - 조선 총독부(무관출신-현역 육.해군 대장을 총독으로 임명), 정무총감(행정), 경무총감(치안) - 중추원: 의장 - 정무총감 + 친일파 구성, 형식적 자문기구(조선인 회유 목적) - 3.1운동 때까지 한번도 소집X

지방 행정 조직 개편: 13도 12부 220군

헌병 경찰 제도: 헌병이 경찰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 수행, 즉결 처분권 행사(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헌병경찰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1910년대: 무단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무단 통치(헌병경찰통치): 조직 - 조선총독부(무관출신 - 현역 육.해군 대장을 총독으로 임명), 정무총감(치안) - 중추원: 의장 - 정무총감 + 친일파 구성, 형식적 자문기구(조선인 회유 목적) - 3.1 운동 때까지 한번도 소집X

지방 행정 조직 개편: 13도 12부 220군

헌병 경찰 제도: 헌병이 경찰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 수행, 즉결 처분권 행사(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헌병경찰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범죄 즉결례(1910), 경찰법 처벌규칙(1912)

조선태형령 제정(1912): 조선인만 적용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강압통치): 일반 관리 및 교원 제복 입고 칼 착용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박탈: 민족 신문 폐간, 정치단체, 학회 해산

교육 기회 제한: 우민화 교육

-1차 조선교육령 공포(1911): 보통학교 수업연한 4년으로 단축, 일본어 위주 교과목 편성, 보통 교육.실업 교육 위주

- 사립 학교와 서당 탄압(서당 규칙 제정, 1918)

경제 침탈 - 수탈체제 확립: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1910) -> 토지조사령 공포(1912)

명분: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

목적: 지세 부과 대상 안정적 확보 ->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 확보

한국인의 토지 약탈

토지의 매매와 저당 자유롭게 하여 일본인의 토지와 투자 쉽게 하기 위해 (일본인 토지소유 합법화)

방법: 일정한 기간 내에 토지소유권자(지주)가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지로 인정:

신고주의 원칙

결과: 토지 약탈: 미신고 토지, 국유지(역둔토)와 황실 소유 토지(궁방전), 황무지와 마을 . 문중의 공유지 등을 총독부로 편입(전국토의 40%) -> 동척을 통해 일본인에 싸게 불하 -> 일본인 대지주 증가, 과세지 면적 증가(1910년말보다 80.7% 증가):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

지주: 신고 증가 -> 소유권 인정 -> 소유권 대폭 강화 -> 토지처분 쉬워짐 -> 일제에 협조적 태도

농민 - 국유지(역둔토, 궁장토).문중 토지 경작 농민 -> 입회권. 도지권 부정, 관습적 경작권 부정 ->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 -> 만주, 연해주 등 해외로 이주 증가

- 신고하지 않은 자작 농민 -> 소작농으로 전락

입회권: 마을 공유지(황무지 초지)등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용권

도지권: 조선 후기 토지제도에서 소작농이 가졌던 권리, 영구 소작권과 그 권리의 양도 .

매매 . 저당 . 상속권을 가짐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계기(등기제)

회사령 공포(1910): 회사설립의 허가제 -> 한국인의 회사 설립과 민족 자본 성장 억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소규모 제조업, 매매업에 한정됨)

제 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치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자원 침탈 : 조선 어업령(1911), 산림령(1911), 조선 광업령(1915), 임야조사령(1918)발포
금융과 산업 침탈 : 은행령(1912, 총독 허가제), 한국은행을 조선 은행으로 고침, 조선 식산 은행 설립(1918), 담배. 인삼.금 등 전매제 실시 -> 총독부의 재정수입 확대

기간시설 정비 : 철도(호남선, 경원선), 도로 규칙(1911, 신작로 공사), 항만 등 건설, 정비 -> 식량과 자원 일본 반출, 일반 상품의 한국 판매에 이용

1920년대 - 문화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문화통치(어르고 뺏치는 기만적인 통치)

배경 : 3.1운동(1919)을 계기로 무단통치의 한계 인식

내용과 실상 : 문관 총독 임명O -> 그러나 임명된 적이 없음(모두 무관 총독)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꿈 -> 그러나 경찰수 4배 증가, 고등 경찰제 본격 시행,

치안유지법 (1925)제정

치안 유지법 :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점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사회주의자 탄압

목적으로 제정, 그러나 모든 독립운동에 적용

조선일보.동아일보 발행 허가 -> 검열 강화.기사 삭제, 압수.정간 폐간 조치, 조선.동아 일보 폐간(1940)

지방자치제 실시 표방 ->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 일본과 친일파로 구성

한국인의 기회 확대(보통학교 증설, 보통학교 교육 연한 4년 -> 6년으로 연장), 대학 설립

규정O -> 친일분자양성이나 식민통치에 도움이 될 도구적 인간양성에 치중, 고등 교육 기회 제한, 한국인 취학을 저조(1920년대 말 보통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조선아동은 약18%정도), 한국인의 대학 설립 억제(민립대학 설립 운동 탄압)

본질 : 민족분열 정책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 허용 -> 친일파 양성 -> 우리민족을

이간.분열 시키기 위한 것 -> 결국 이광수 등 일부 지식인들이 문명개조론.자치론.참정론

주장 -> 민족운동 분열

경제 침탈

산미증식계획(1920~1934)

1934년 중단 이유 : 대공황 -> 일본 농민 보호 목적 -> 일반적으로 조선 내 쌀값 폭락

1940년대에 군량미조달 목적으로 재개

배경 :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 쌀 부족 현상 발생 -> 안정적인 수량 공급지 확보 필요

방법 : 밭 -> 논 비종 높임, 간척사업, 수리조합(1917년 수리조합령 반포 -> 1927년 개정),

종자 개량, 비료 사용 확대 -> 쌀 증식량 증대

결과 : 한국의 식량 사정 악화 : 증산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나 일본으로의 수탈은 계획대로 진행 ->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유출량이 더 많음 -> 한국인의 1인당 쌀소비량 감소 ->

만주에서 수입한 조, 수수 등 잡곡으로 대체(만주산 잡곡 수입 증가)

농민처지 악화 : 쌀 증산 비용을 농민에게 부담시킴(수리조합비 과다 징수, 품종개량비, 비료대금 등) + 고율의 소작료 + 각종 세금 부담 -> 소작쟁의 증가, 해외로 이주 증가(만주, 연해주)

쌀 수출로 인해 지주의 이익 증대 -> 식민지 지주제 강화(문화통치의 기반)

농업 구조 변화 :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 정착(1)

산업 침탈

-회사령 폐지(1920) :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꿈 -> 일본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한국 진출 유도

-한.일 관세 폐지(1923) -> 직물, 기계, 의료 등에서 값싼 일본 상품 유입 증가 -> 한국 기업에 타격, 일본의 상품 소비 시장으로 전락
-신은행령(1928) -> 한국인 소유 은행 말살(탄압) -> 일본 자본의 지배 강화

1930~1940년대 -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

민족 말살 통치 : 전시동원체제 이후 본격화

배경 : 1차 세계대전의 특수 약화, 대공황(1929) -> 일본 경제 위기 심화 -> 침략 전쟁을 통해 대공황 타개하고자 함

대륙침략 전쟁 확대 : 만주사변(1931.9) -> 만주국 수립(1932.3) -> 중.일 전쟁(1937.7.7.) -> 태평양 전쟁(1941)

목적 : 한국인의 민족 말살, 일본인에 동화 -> 한국인의 민족정신 말살

내용 :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 강조(일본과 조선이 한 몸과 같다), 황국 신민화 정책 추진 - 민족 말살 통치 본격화(1937~중.일 전쟁 이후) :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강요(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유공자를 봉인해 놓은 사당, 전국 각면마다 한개씩 지어놓음. 일제 말기에 전국에 1000여개. 참배 거부나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 교리상 이유로 거부하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폐쇄)

궁성요배/창씨개명 강요(법안 마련(1939)->시행(1940) :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라)

-교육 통제 :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1941)

3차 조선 교육령 : 조선어의 선택 과목화, 우리말 사용 및 교육 금지

4차 교육령(1943) 조선어 완전 사용 금지, 조선사 폐지, 군사훈련 실시

-언론 탄압 : 조선일보.동아일보 강제 폐간(1940), 한글 잡지 폐간

-조선어학회사건(1942) :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회원들을 구속하고 해산시킴 (1942)

병참 기지화 정책 : 한반도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 공급지대로 이용

조선 공업화 정책 : 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방에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 -> 결과 : 한국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 지하자원 수탈,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 공급(중.일전쟁 이후 군수 산업 위주로 재편), 공업구조의 불균형 초래

남면북양 정책(1932) :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보호구역 정책에 대비하여 일본의 방직업보호 -> 남부에 면화 재배, 북부에 양 사육 강요 -> 한국 농촌이 일본의 원료공급자로 전락(원료만 수탈)

농촌 진흥 운동(1932~1936(법적) 또는 1940(실질적)) - 농민 회유.조선 농민의 소작쟁의 무마 목적 -> 같은 맥락에서 소작조정령(1932).조선농지령(1934)재정.공포 : 실효성X

중일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 체제로 개편 -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라 : 국가 총동원법 제정(1938.4) : 중.일 전쟁(1937) 이후에 침략전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 징발 위해 제정

제 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 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 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 수리. 배급 . 양도,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침략 전쟁을 위한 강제 동원

전투 병력 동원 : 청년들을 전쟁터로 - 중일전쟁 -> 지원병제(1938.2, 국가 총동원법 공포 이전) -> 태평양전쟁(1941) -> 학도지원병제(1943, 학병거부,탈영 후 독립군에 합류(장준하, 김준엽)) -> 징병제 실시(1944, 공포는 1942년)

노동력 동원 : 강제 노동 현장으로 - 징용제 실시(1939, 100만 명의 청년을 탄광.금속 광산 . 토목 . 건축공사장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 ->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학사당하거나 희생당함)
여성 인력 강제 동원 : 여자 정신대 근로령(1944, 12~40세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강제 동원 -> 한국과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함,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 중 젊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보내 전시 성노예로 희생당함, (수십만명으로 추산됨) -> 전쟁 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불행한 삶 영위)
근로보국대(1938~) : 조선여성과 학생 노동력 수탈 목적(징용 제외 대상), 몸빼 착용
전쟁 물자 약탈
공출제 실시 - 군량미 확보를 위한 쌀 공출(1940) > 잡곡 배급(만주로부터 수입) -> 식량 배급제 실시 - 무기 제조를 위한 급속 공출(농기구.놋그릇(사기 그릇 나누어 줌).수저, 교회와 사찰 중)
산미 증식 계획 재개(1940) : 군량미 확보 목적
애국반 편성(1938) : 10호 단위로 구성(1반), 한국을 일원적인 조직망으로 편성, 공출 참여 . 국방헌금 독려.일장기 게양.신사참배.일어상용 등 일상생활 감시 등
국민 복령(1940) : 전시 복장 강요(남자 - 국민복, 여자 - 몸빼(일본 농촌 여성 작업복))